

방학이 시작됐다. 얼마전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집단 건의서를 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충지를 받거나 과도한 체벌을 가한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로 아이들을 소신껏 가르칠 수 없다는 일선교사들의 한숨소리도 들린다. 기본교육이 이뤄져야 할 가정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되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잘 가르쳐 달라고 회초리를 선봉하는 학부모와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을 때, 교사 스스로 참된 교육자임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아이들이 '윈-윈'으로 키우려는 사회전체의 일체감이 있을 때 참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제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로 스승을 바르게 존경하고 바르게 봉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모르는 점은 반드시 밝히서 질문하며,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일을 반드시 민첩히 처리하며, 그릇된 행위가 반드시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경함이다.

참교육

“본의 알아야 가르치기 쉽다”

요구치 말며, 예를 숭상하여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며, 온화하고 성실하여 서로 원망해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제자와 스승 사이는, 양쪽이 다 참되고 성실해서 스승은 스승답고 제자는 제자다워, 서로 비난한 다투거나 미워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작은 원한이 크게 번진다면, 도리어 제 몸을 대우는 결과가 되리라.

■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축출하여 기르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 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 <선생지경>

■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둘째는 길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넷째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다섯째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급여함이다. <육부경>

■ 사제의 의(義)는 자연스러운 가운데 감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깊이 믿어, 상대를 자기처럼 여겨서 제가 못하는 일을 상대에게

■ 본의(本意)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자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심경>



◇ 지금 청소년이 원하는 성교육은 어떤 것일까. 사진은 지난 7월11일 열린 내일여성센터 주최 '청소년 성교육 사례발표회'.

“음욕은 온갖 고통의 원인”

“네가 정도를 걷고 싶으면 애욕과 음욕을 이겨내야 한다. 청춘과 미색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곧 노병과 노쇠와 고뇌가 뒤따를 것을 명심하라.” <유행경> 부처님께서 아라팔라라는 젊고 예쁜 창녀에게 한 말씀이지만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반열반경>은 “애욕은 사람의 정서에 발대를 꽂아 넣고 양식을 빨아 내서 지성을 말라 죽인다”고 설한 바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발적인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여름방학에 가정 성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불의와 패덕을 쌓는다”는 경구를 들려주자, 또 도리에 어긋난 성행위는 온갖 고통의 원인이 된을 주지시켜야 한다. “음욕은 관찰할 때 재미가 적고, 허를 때 항상 얽히며 묶이는 것이며, 음욕을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고, 다른 나쁜 짓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음욕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근본설일체유부> 전권 16개 지부 중 일부에서 청소년 성상담과 성교육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등 불교청소년단체들이 더욱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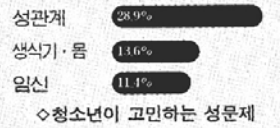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눈높이 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개방적 상담 휴가철 탈선예방 프로절실

청소년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제 해부도 설명하는 식의 '생물학적 성교육'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실제 상황과 맞게 인격형성과정으로서의 성교육방법론을 모색하는 이른바 '인본주의적 성교육'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내일여성센터부설 성교육센터(소장 구성애)는 최근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청소년 성교육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센터가 수도권 지역 6개 초·중·고 6백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어진'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성교육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비롯한 구체적인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내일여성센터는 이에 따라 “성교육은 성기와 행위중심에서 인격과 인간관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교육 방법도 느낌과 체험을 통한 방식을 강조한다. 성적 충동이나 성관계, 성폭력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뒤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토론한 후 극으로 구성해 보는 '역할극', 달걀을 하나씩 나눠준 뒤 1주일동안 갖고 다니도록 해 부모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달걀 키우기', 퀴즈식 성문제 상담 등이 그것이다. 성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유사하다. 10여년간의 성교육 현장체 험담을 담아 <우리가 성에 관해 알고 싶은 것>(또 하나의 문화 刊)을 펴낸 중앙여고 김성애 양효교사는 “아이들은 어른의 상상보다 훨씬 성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있고, 이



◇ 청소년이 고민하는 성문제

인한 고민과 갈등도 절실하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의 성은 주제적이어서 “한다”고 결론내린다. 자유로운 성이 가져올 후유증까지 모두 알려준 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학교와 사회의 성교육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의 성교육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추세다. 최근 <청소년 성의식 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한 경기대 교육대학원 김성원교수는 “부모가 가장 격의없는 성문제 상담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발적인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여름방학에 가정 성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보험금 자살 월평균 215건 “자살은 지옥행 악업”

“너는 지금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아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받을 것이다.” 과거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사람의 몸을 얻었는데, 의도의 사되고 나쁜 말과 헛된 욕심에 홀려 이처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뒤에 지옥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백유경>

생명을 돈과 바꾸는 인명경시 풍조와 한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보험금자살'이 늘고 있다.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현행 생명보험 약관 42조 1항)는 점에 착안해 결행되고 있는 '보험금자살'은 처자식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평생을 고통속에 지내야 하는 결론가장만 양산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삼성·교보·대환 등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의 올 상반기 보험가입자 재해사망중 자살건수를 분석한 결과 예년에 비해 평균 20%이상 증가한 월 2백15건의 자살사태가 집계됐다. S생명의 경우 올 상반기 보험가입자 자살수는 6백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백30건에서 19% 늘었고, 보험금도 30억원에서 42억원으로 40% 증가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노린 위장자살 여부를 놓고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보험금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위기개입 상담센터 개설 ▲보험사간 가입자 정보공유 ▲잠재 자살자'를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고용·연금보험 확대 ▲보험사의 질적위주 경영(전문화·계약사정 및 조사업무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영월 동강댐 백지화’ 각계인사 100인 선언

백양사주지 지선스님, 크르 스찬아카데미사장 강원통목사, 소설가 박경리씨 등 각계인사 1백명은 지난 7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영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동강일대는 석회암 지층이고 동굴이 많아 댐이 건설될 경우 붕괴위험이 높음에도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과 수달 비오리 하늬다람쥐 등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 생태환경을 지키고 있다”며 “응수공급을 위해 대형댐을 건설하기 보다 수도관의 누수율을 개선하고 물절약 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고 지적했다. 김성현(국민회의)의원 등 국회의원 10명 소속 의원 41명은 7월27일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을 원점에서부터 과학적·공민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동강다목적댐 건설계획 전면재검토'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절저한 안전성 검증과 자연자원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환경오염 막아야한다” 세계 종교계 ‘한 목소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세계 주요 종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세계종교지도자들과 학자들은 7월22일 미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 주요 종교들이 환경정책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경청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불교, 기독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 나교, 유대교, 일본신도, 도교, 그리고 토속종교들이 “환경정책에 있어 종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약 6백명의 학자들과 종교지도자, 환경전문가들은 그들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비가 무엇인지에 관해 지난 96년 이래 토 의에 왔으며, 이들은 일련의 회의를 통해 “환경과평화를 중단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하는 개인과 기관 및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종교의 생태학적 연관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 종교 지도자·학자 그리고 환경전문가들은 오는 10월 21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종교와 생태학-공통되는 바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최종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그 동안의 토의내용을 총결산하고 아울러 이를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신상품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출장 및 여행지에서 휴대폰 방전시 유용한 무선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가 출시됐다.

모든 휴대폰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분 충전으로 10시간 통화대기와 30분 연속 통화가능하다. 명함 크기의 휴대가 간편한 초경량 제품으로 전기코드 없이 전선지 2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다.

한 시스템. 2인8천원. (02)418-0270

영구명대사학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연령 제한없음)

1.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 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2. 저렴한 학비
 ·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3. 교수진
 · 우학스님(저자는 맨날 고기묵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교재+테이프" 집에앉아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신묘장구 대다라니 세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①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②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사이즈 39×39cm
 색상 빨강, 검정
 가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 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 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걸렸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 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수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게도 既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제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상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 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희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로버트 조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하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촉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원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 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0547)437-4136, 437-41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은빛모래, 반짝이는 발자국마다 추억이

가슴으로 잊어오든 바다.

들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는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참교육으로 다가오는 보랏빛 물결 파랗게 부서져 버린

파도를 손목으로 감싸안으며 어깨위로 밀려온 고독은 끝내 파도울음 러트리며 잔잔하게 노닐었으로 내려앉는다.

원장 이영숙(본명) 大幸, 초·재혼 신원 확실히하고 직업 확실히 하몬나려 친영, 지병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